



백신 접종을 통한 안정화 방법 외 돈군 내 PRRS 청정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돈군 폐쇄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군 폐쇄는 안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며, 오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만큼 체계적인 계획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종돈장에서는 근본적으로 PRRS 박멸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 방법으로 첫째, 다단계 사육시스템(Multi site production)이 가능한 농장이면, 초기 이유를 통하여(14일령 이하) PRRS 감염 이전에 자돈을 청정 농장으로 이동시켜 음성 자돈군을 조성하고 이들을 후보돈으로 육성하여 음성 모돈군을 조성합니다. 이후 농장에는 PRRS 음성 돼지만 도입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기존 감염 모돈군과 다시 합사해야 할 경우, 우선 백신을 실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합사하여 백신 바이러스를 농장 내에 확산시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생독백신 사용 시 혈청학적으로 백신 바이러스와 야외 바이러스의 감별 진단이 어렵고, 웅돈을 접종하면 정액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배출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며, 임신돈에 백신을 접종하며 유·사산 또는 미라 등이 간혹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돈군 폐쇄 방법】

1. 번식 돈군의 PRRS 면역 상태 검사 후 평가
2. 장기간 농장폐쇄(6개월 정도)
3. PRRS 음성인 후보돈과 정액 구입처 선정
4. PRRS 음성 후보돈과 정액 유입 : 가장 위험한 시기이며, 기존 돈군과의 장기간 노출 후 종부 실시(감시돈을 통한 확인이 안전)
5. 모돈과 후보돈 음성화에 성공 후 육성돈 구간에 돈사 비우기를 실시하며 단계적으로 양성돼지를 제거
6. 혈청검사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